

##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권태경\* · 장동헌\*\*

\*남원시 농업경영인 ·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Young Farmers' Self-reliance and Farming Continuation

Gweon Tae-Kyeong\* · Jang, Dong-Heon\*\*

*\*Agricultural Manger, Namwon city*

*\*\*Professor, Divis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Food Market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young farmers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decreasing, but it is difficult to secure a stable agricultural workforce.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in the will to self-reliance and farming continuation for young farmers at a time when agricultural and rural farmers are decreasing and ag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young farmers are young, highly educated, have short farming experience, and mainly livestock and gardening were hig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will of young farmers to stand on their own feet influenced the sustainability of young farmers by partially selling their family support. The main implications are the need for support or support for internal growth of young farmers and the need for continuous family support. It was also understood that young farmers should have the will to stand on their own feet in order to have continuous and satisfactory farming results.

**Key words** : Young Farmers, Self-reliance, Farming Continuation, Family Support

## 1. 서 론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유지시키고 환경 및 농촌사회를 보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생물다양성의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의 역할을 한다(Im, 2003). 그 동안 농업·농촌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고령화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인력은 영농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과 영농생계의 저하 등이 예상되며(Ma & Kim, 2010), 향후 농업·농촌의 붕괴마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농가인구는 2019년 현재 2010년에 비해 26.7%가 감소한 2,244,783명이며, 이중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는

2015년에 전체 농업경영주의 1.3%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0.7%로 감소하였다(KOSTAT, 2019). 따라서 농업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업·농촌의 인력부족은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위험과 함께 농업·농촌의 소멸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청년 농가인구의 감소에서도 확인되는데, 2010년에 429,800명에서 2019년에는 202,40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Kostat, 2019). 더구나 정부가 지속적인 후계 농업인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였고(Bokuennews, 2018), 귀농·귀촌의 지원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 신규 1만 농가가 농업·농촌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농업·농촌에서 매년 3만명의 농가

Corresponding author : Jang, Dong-Heon

Tel : 063-270-4329

E-mail : jdh584@jbn.ac.kr

가 은퇴하고 있고, 농업·농촌의 순 유입 농가는 매년 2만 농가씩 감소하고 있다(PCAFRP: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 member of the Subcommitte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2020). 특히 청년농업인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영농을 포기할 때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청년농업인의 연구는 학습단체(Han, 2012; Lee, 2014), 교육(Jung, 2009; Lee et al., 2003), 육성정책(Oh & Kim, 2002; Kim, 2017; Han, 2019; Lee, 2019) 등이 있는데, 농업인의 가치관,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농업인력 육성의 개선, 농업인력의 총체적 접근과 컨설팅, 융복합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된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의 관계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청년농업인은 영농이행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능동적인 경우도 있지만, 낮은 자립의지,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수동적인 영농이행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청년농업인이 영농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농이나 영농행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Choi et al., 2007, Afnnews, 2018; Jjan, 2020). 특히 청년농업인의 정서적 안정은 가족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Kim, 2003),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는 영농이탈이나 영농포기라는 위기상황에서 지속성을 확보해 주는 지지체계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촌인력의 부족상황에서 미래 농업의 주축을 형성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청년농업인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청년농업인의 이론적 고찰

### 1. 청년농업인의 개념과 특성

전국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2000년 8.8%에서 2010년 6.4% 그리고 2019년에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2000년 21.7%, 2010년 31.8%, 2019년 46.6%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는 2000년 32.7%, 2010년 46.4%, 2019년 62.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경영주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정부는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우수후계농업경영인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력의 확보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나이, 거주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Succession Youth Farmers and Fishermen Act, 2020). 이러한 청년농업인의 연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서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연구는 Kim et al.(2015), Choi et al.(2020), Kim(2016)이 있는데, 주로 청년창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다만, 농업경영의 차원에서는 Jeong et al.(2019)과 Ma et al.(2017)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의 일반적 특성은 비농업인보다 여성의 비율과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낮으며, 교육수준은 높았다(Jeong et al., 2019). 또한 청년농업인의 경영은 겸업이 많고, 작목은 과수와 축산이 많으며, 경작면적은 일반 농업인에 비해서 면적이 크며, 생산자조직의 참여와 정보화 기기의 활용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Ma et al., 2017).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농을 그만두거나 영농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청년농업인의 이탈방지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Choi et al., 2007, Afnnews, 2018; Jjan, 2020; Hani, 2020; Gukjnews,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의 인력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그들의 자립의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자립의지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을 뜻하며,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립은 기본적인 욕구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Pearce et al., 1997),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사업 참여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갖으며, 안정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Huh, 2005), 개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든 생활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Johnes, 1993)이다. 또한 의지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의지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자립의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자기 발견적 의욕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Huh, 2005). 이러한 자립의지는 자신감과 같은 개념으로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며(Oh, 1998), 자립의지의 하위 요소는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으로 구성된다(Choi, 2010).

이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를 의존 탈피와 안정된 삶의 질에 도달하려는 자기 발견적 욕구로 보고, 농업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자신감, 어떠한 여건에도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통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하려는 근로의욕으로 규정을 하였다.

### 3. 영농지속성

영농지속성에서 영농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양하여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지속성은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성이란 인간이 삶의 터전으로 삼는 자연환경 또는 공공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경제·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농과 지속성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윤창출과 성장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성은 경제적인 발전에서 사회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농업의 관점에서는 영농지속성이란 농업인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농산물을 재배 및 생산하여 농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영농지속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개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으로 자연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생산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며(Kim & Kim, 2002),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서 농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Yu, 1998).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관계를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고, 생산자의 경제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농업생산과정에 환경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영농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Bae, 2014).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영농지속성의 공통적인

개념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적인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지속성과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이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농가소득이 안정적이며,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려는 성향인 경제적인 부문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 성장을 도모하는 성향인 사회적인 부문을 포괄하여 영농지속성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청년농업인이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년농업인의 연령층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시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4. 가족지지

지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에 찬동하여 이를 위해 힘을 쓰거나 또는 그 원조를 뜻한다. 이러한 지지는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신체적 지지는 신체적 보살핌을 의미하고 정서적 지지는 말없이 대상자의 경험을 경청하면서 감정이입의 상태로 정서적 개입을 하는 비언어적 행위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 하도록 하는 언어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Kim, 2003).

가족은 인간의 정서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인식체이자 애정에 찬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이며, 이로 인하여 개인은 정서적 안정을 자신의 가족을 통해 해결하며,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 사회에 참여한다(Kim, 2003). 가족구성원의 개개인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상호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이 갖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Lee & Choi, 1997). 이러한 점에서 가족은 영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보다도 청년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Ryu, 2019),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을 도와주는 지지체계로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Nam, 2020).

이처럼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계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며(Paik, 2000), 안정감과 지지체계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가족지지는 아무리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농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청년농업인을 믿어주고 독려해주며, 그의 관심사나 능력에 대해 격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III. 연구모형과 조사설계

#### 1. 연구모형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했으며, Kim et al.(2013), SUNG(2014), Choi(2014), Woo(2015), Park(201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가설 1은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설 2는 청년농업인의 가족지지는 영농지속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하였고, 가설 3은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는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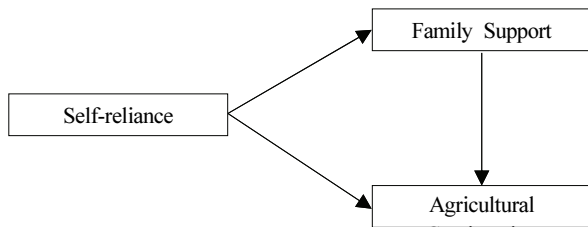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 2.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문항은 자립의지와 가족지지, 영농지속성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했는데, <Table 1>과 같다. 자립의지는 일의 원인과 결과의 분석(FI1), 스스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생각(FI2),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음(FI3), 혼자 힘으로 어떤 일이든 수행(FI4),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음(FI5), 필요시 스스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FI6),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함(FI7),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의지(FI8), 결정한 사항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FI9), 문제에 직면할 때 외부환경의 영향 검토(FI10), 농업수입이 적어도 스스로 생계비 해결(FI11),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음(FI12), 영농정착금과 토지 중 토지를 선택(FI13),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지 않음(FI14), 언제나 내가 맡은 일을 잘함(FI15)으로 하였다.

영농지속성은 노력만큼의 매출 증가(FS1), 농업경쟁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FS2), 농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FS3),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시도(FS4),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FS5),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와줌(FS6), 새로운 농업인의 포용(FS7), 농촌사회와 함께 성장(FS8), 영농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FS9)이다. 그리고 가족지지는 언제든지 도움(FH1), 관심과 걱정(FH2), 일의 인정(FH3), 의견존중(FH4), 가족을 믿고 의지(FH5)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영농경력, 결혼여부, 영농형태로 구성하였다.

#### 3. 조사분석

설문조사는 전북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예비조사는 12월 1일부터 2일에 실시하여 측정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약 3일간이며, 청년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e-mail, SNS)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43부이며, 이중 내용이 부실한 6부를 제외하고 1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와 웹기반의 Sobel t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농가의 특성은 빈도분석,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는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3단계의 매개회귀분석은 1단계에서 매개변수에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	Analysis questions	Scale	Cited Literature
Self-reliance	(FI1)*, (FI2), (FI3), (FI4), (FI5), (FI6)*, (FI7)*, (FI8), (FI9), (FI10)*, (FI11)*, (FI12)*, (FI13)*, (FI14)*, (FI15)	7	Choi(2014), SUNG(2014), Woo(2015), Park(2019), Kim et al.(2019)
Agricultural Continuation	(FS1)*, (FS2), FS3), (FS4)*, (FS5)*, (FS6)*, (FS7), (FS8), (FS9)*	4	
Family Support	(FH1), (FH2), (FH3) (FH4), (FH5)	5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Farming career, Marital Status, Farming type		

Note: The variable in \*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process due to the low factor loading.

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Bae, 2015). 그리고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1982)의 검증(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 IV. 실증분석의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78.7%, 여성이 21.3%이다. 연령은 19-29세가 59.6%, 30-39세가 36.7%, 40-42세가 3.7%이며, 학력은 대졸이 71.3%, 기타가 28.7%이었다. 영농경력은 5년 이하가 68.4%, 6-10년이 24.3%, 11년 이상이 7.3%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6.9%로 기혼의 33.1%보다 많았다. 청년농업인의 영농형태는 축산업이 31.6%, 원예가 26.5%, 식량작물이 17.7%, 기타가 7.2%, 농산물의 가공업과 복합업이 각각 5.9%로 나타났다.

##### 2.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상관관계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의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으로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Kim, 2017), KMO값이 0.859, Bartlett의 유의확률이  $p=0.000$ 으로 요인분석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61.1%로 나타나 적합하였다. 그리고 문항과 요인간의 요인적재치는 0.5이상, 고유값은 1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그리고 문항의 신뢰도의 경우 자립의지는 0.828, 영농지속성은 0.779 그리고 가족지지는 0.878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의 하위 문항들간에 내적 일관성이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선, 각 변수의 평균은 가족지지 4.0987, 영농지속성 3.9926, 가족지지 4.1529이며, 가족지지>자립의지>영농지속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자립의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의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로 파악되어,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 간의 상관계수는 0.467, 자립의지

Table 2. Characteristics of young farmers under investigation

Division		N	%	Division		N	%
Gender	Male	107	78.7	Marital Status	Married	45	33.1
	Female	29	21.3		Single	91	66.9
Age	19-29	81	59.6	Farming type	Livestock	43	31.6
	30-39	50	36.7		Horticultural crops	36	26.5
	40-42	5	3.7		Food crop	24	17.7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graduate	2	1.5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industry	8	5.9
	High school graduate	28	20.6		Combined business	8	5.9
	University graduate	97	71.3		Forestry	3	2.2
	Graduate school graduate	9	6.6		Special crops	2	1.5
Farming career	Less than 5 years	93	68.4		Aquaculture	2	1.5
	6-10 years	33	24.3		Other	10	7.2
	11 years or more	10	7.3		Total	136	100.0

Table 3. Analyz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Variables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 $\alpha$
Self-reliance	(FI2), (FI3), (FI4), (FI5), (FI8), (FI9), (FI15)	0.565~0.812	3.380(21.125)	0.828
Agricultural Continuation	(FS2), (FS3), (FS7), (FS8)	0.698~0.782	2.734(17.088)	0.779
Family Support	(FH1), (FH2), (FH3) (FH4), (FH5)	0.703~0.883	3.665(22.905)	0.878
KMO and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5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990.927, d.f=120, Sig=.000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td. Deviation	1	2	3
Self-reliance	4.0987	.55710	1		
Agricultural Continuation	3.9926	.72517	.467**	1	
Family Support	4.1529	.76989	.280**	.379**	1

Note: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bilateral).

와 가족지지간은 0.280 그리고 영농지속성과 가족지지간의 상관관계수 값은 0.37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결과, 1단계의 독립변수인 자립의지는 매개변수인 가족지지에 유의한 영향( $\beta=.280, p<0.05$ )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2단계의 독립변수인 자립의지는 종속변수인 영농지속성에 유의한 영향( $\beta=.467, p<0.05$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3단계에서 자립의지와 가족지지를 투입하여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매개변수인 가족지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립의지도 영농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립의지는 가족지지를 부분매개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한 인과모형은 <Figure 2>와 같다.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0.467이며, 가족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총효과인 0.467에서 직접효과인 0.392를 차감한 결과, 0.0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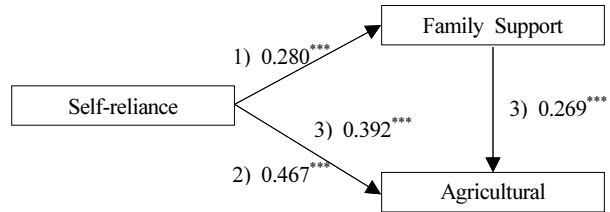


Figure 2. Causal model using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가족지지를 매개하여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하였다. Sobel Test는  $|z|$ 가 1.96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것으로 판단된다(Sobel, 1982; Bae, 2015; Jang, 2018). Sobel Test의 결과 Z값은 2.430 ( $p=0.007$ )으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n the Influence of Independence Will on Agricultural Continuation

Dependent variable \ Input variable	Family Support		Agricultural Continuation	
	$\beta$		$\beta$	
	1 step	2 step(Model 1)	3 step(Model 2)	
Self-reliance	0.280***	0.467***	0.392***	
Family Support			0.269***	
$\Delta R^2$			0.067***	(F=12.420)
$R^2$	0.078	0.218	0.285	
F-value	11.385***	37.457***	26.536***	

Note: \* $p<0.05$  \*\* $p<0.01$  \*\*\* $p<0.001$ , 3-step multicollinearity diagnosis(VIF: 1.085<10)

Table 6. Sobel verification of family support mediating effect

Indirect path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Coefficients)	Z(t)-vaue	p-value
Self-reliance→Family Support→Agricultural Continuation	0.075	2.430	0.007

## V. 요약 및 결론

한국농촌은 경제성장속에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농업인구는 매년 줄어 들고 있다. 또한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지지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 영농지속성, 가족지지의 각 변수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성의 분석결과, 요인적재치는 0.5 이상, 고유값은 1이상으로 타당도는 확보되었고, 신뢰도는 자립의지가 0.828, 영농지속성 0.779, 가족지지가 0.878로 각 변수 모두 0.6 이상으로 일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값은 가족지지, 자립의지, 영농지속성의 순이며, 변수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에서 자립의지는 가족지지를 부분매개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0.467이며, 가족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성을 위한 기초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업인이 영농이탈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내적성장을 통해 자립의지를 갖도록 사회적 지원이나 지지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적 또는 법적 기반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기반에만 의존한 청년농업인의 지원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지체계는 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영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적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는 자립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은 가족지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가족지지는 영농이탈이나 포기 상황 등의 위기상황에서 영농지속성을 확보해주는 강력한 지지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강화,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가족들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가족이 청년농업인의 지지체계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농업인의 교육 진행 등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했지만, 조사대상의 지역적 제한, 일반적 특성의 미활용, 비교논의 부족 등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에 이론적 정립과 조사대상의 확대, 분석의 체계화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은 권태경(2021.02)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References

1. Afnews, 2018, Let's give young farmers dreams and hopes. 2018. 05. 28(Accessed on May 9, 2021).
2. Bae, B. R., 2015, Analyses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Seoul: Chungnam.
3. Bae, B. Y., 2014, The influence of local food on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4.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5. Bokuennews, 2018, Lack of connection with the youth start-up farm development site(May, 10, 2018), Accessed on November, 05, 2020.
6. Choi, E. S., 2014,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 reliance of youths in the residential care, Ph.D. Thesis, Hanseo University.
7. Choi, J. H., 2010, Study on how the Social support affects the will of people to be self supportive, Thesis, Sogang University.
8. Choi, S. H., Kang, H. K. and Lee, D. S., 2020, Impact of Youth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the Success and Satisfaction of Start-ups through Entrepreneurial

- Self-Efficien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5): 245-259.
9. Choi, Y. C., Park, E. S., Ko, J. S., and Cho, Y. S. 2007. Present Status of Upbringing Young Farmer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4(2): 351-371.
  10. Gukjnews, 2021,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young farmers from leaving the country. 2021. 01. 21(Accessed on May 9, 2021).
  11. Gweon, T. K., 2021, The Influence of the Young Farmers will of Independence on Agricultural Continuity,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12. Han, M. H., 2019,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Satisfaction and a Key Crop Selection Factor Analysis of Young Start-up Farm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 Han, S. O., 2012, A Study on the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Farmers' Learning Organizations,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133-160.
  14. Hani, 2020, Nine young farmers who receive salarie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re selected. 2020. 06. 15(Accessed on May 7, 2021).
  15. Huh, T. H., 200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Reliance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6. Im, J. B., 2013, The meaning of maintaining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agricultural sector,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6(3): 55-73.
  17. Jang, D. H.,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Fellowship Activities on Farmers' Sense of Community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Focusing on Participating Farmers in Co-Selection and Shipping Organiza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3(5): 1773-1787.
  18. Jeong, Y. K., Hwang, J. I., Choi, Y. J. and Choi, J. S., 2019,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Young Farm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6(3): 143-151.
  19. Jjan, 2020, Local extinction, youth is the solution. 2020. 11. 04(Accessed on May 8, 2021).
  20. Johnes, K., 1993, *Asylums and After: A Revised History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1990s*, London: The Athlone Press.
  21. Jung, K. E.,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Successive Agricultural Workers,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21: 201.
  22. Kim, C. G. and Kim, J. H., 2002,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3. Kim, C. G., Jeong, H. K., Yun, S. J., Choi, J. H., Baek, J. H., Yang, S. Y., Lee, E. H. and Cho, J. E., 2013, *Social Assessment of Sustainable Agriculture*,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4. Kim, G. H., 2017,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Promotion of Youth Farmers in Chungcheongnam-do, ChungNam Institute.
  25. Kim, H. C. Lim, A. R. Kim, K. P., 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8(2): 27-58.
  26. Kim, H. S., 2003,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in Christian Youth through Family Support, Thesis,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27. Kim, W. P., 2017, *Basic Statistics*, Seoul: Wisein Company.
  28. Kim, Y. S., 2016, Performance Analysis and Improvement Program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f Rural Youth:with support project for farming resettlement by Chungcheongnam-do,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9. KOSTAT, 201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urvey*.
  30. Lee, E. C.,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a young agricultural pre-founder to start, Thesis, Chung-Ang University.
  31. Lee, E. Y., 2014, A Study on facilitating factors for young farmers learning organization, Thesis, Hanyang Cyber University.
  32. Lee, K. O. and Choi, Y. H., 1990, *Family Health Sciences*, Seoul: Soomoonsa.
  33. Lee, K. S., Song, D. Y. and Lee, N. H., 2003,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Production Agricultural Resources, *The Society of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a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53-81.
  34. Ma, S. J. and Kim, K. H., 201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On-farm Performance and New Farming Entry



- Barrier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3(4): 1-18.
35. Ma, S. J., Jeong, E. M. and Kim, K. G., 2017, How to Advance a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6. Nam, S. H., 2020, The Effect of Familial Supports on the Happiness and Depression among the Marriage-Based Female Migrants: Acculturative Stress and Loneliness as Mediator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25(2): 23-29.
  37. Oh, H. K., 1998, A Study on The Independent Living Practic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Social Welfare Review* 3: 39-63.
  38. Oh, H. S. and Kim, J. J., 2002, The Directions of Supporting Policy and Education Strategy for Young Agricultural Workforc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9(2): 185-197.
  39. Paik, S. H., 2000,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suppor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competence,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40. Park, S. H., 2019, An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ense of Community of Women Victims of Family Violence on Their Sense of Self-Reliance,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41. PCAFRP(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a member of the Subcommitte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2020, Measures to promote youth employment and start-up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42. Pearce, D., Brooks, J. H. and Outtz, J. H., 1997,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pennsylvania: selected family types. *Wider Opportunities for Women*, Washington Inc, Women's Association for Women's Alternatives.
  43. Ryu, H. J., 2019,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Proceedings*, 172-186.
  44. Sobel Test, <https://www.danielsoper.com/statcalc/calculator.aspx?id=31>(Accessed on May 8, 2021).
  45.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46. Succession Youth Farmers and Fishermen Act, 2020,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47. SUNG, Y. H., 2014, Influential factors of independence will for female-head of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with a focus on family support and society support, Thesis, Soongsil University.
  48. Woo, Y. L., 2015,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health perception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Thesis,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49. Yu, J. G., 1998, Deep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olicy's Issue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6(2): 41-61.

- 
- Received 16 March 2021
  - First Revised 7 April 2021
  - Second Revised 3 May 2021
  - Finally Revised 11 May 2021
  - Accepted 12 May 2021